

## “문화전당재단 ‘광주 패싱’ 불통 인사 철회하라”

광주시·시민사회·문화계, 초대 이사장·사장 영터리 인사 분통  
“문화 전문성 부족한 인사 선임...논평 발표하기조차 부끄럽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문화전당재단) 초대 이사장과 초대 사장 임명을 둘러싼 파문(광주일보 18일자 2면)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와 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이루어진 이번 인사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시민사회·문화계는 이번 경영진 임명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시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주시와 일체의 협의도 없이 경영진을 임명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 시민연대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등 지역 시민사회·문화계는 11일 논평에서 “이번 문화전당재단 초대 이사장 및 사장 임명 소식을 접하면서 충격·놀라움·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며 “문체부는 불명확하고 후안무치한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문체부는 지난 17일 문화전당재단 초대 이사장에 최영준 전 광주문화방송 사장, 초대 사장에 김선욱 (사)문화예술협회 이사장을 임명했으며, 김 사장은 당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시민사회·문화계는 “문체부는 이번 인사를 문화, 경영,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고 지역 현안에도 정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문화전당재단을 이끄는 적임자로 자평하고 있다”며 “우리는 차마 논평을 발표하기조차 부끄럽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출범한 전당재단은 문화전당과 함께 조성사업을 견인할 핵심 기관으로, 문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목표와 긴밀히 맞닿아 있다. 그러나 비전문가로 경영마인드도 없는 경영진의 면면은 정부가 과연 조성사업

과 문화전당 정상화에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 것인지 회의를 갖게 한다.

시민사회·문화계는 “이번 인사는 지역의 염원을 무시한 행위이자 사실상 문화전당재단 운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난 20여 년간 조성사업,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비롯해 문화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는데 이번에 임명된 경영진의 역할과 주목할 만한 실적 등 기억나는 바가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화전당 정상화와 조성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화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치도 중요하다. 이번 인사는 ‘악수’(惡手)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성과는 동떨어진 경영진이 향후 문화단체와의 관계 설정 및 문화전당과의 조정 작업 등을 원만히 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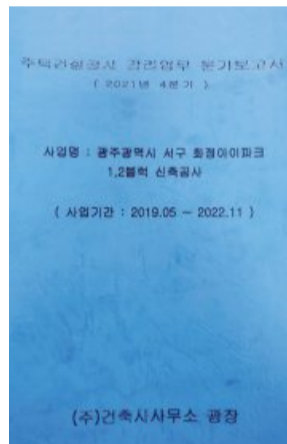
광주시 또한 1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아특별개정안이 국회 통과되기까지 광주시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인 그리고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150만 광주시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성원과 협력했음에도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인사를 전격 단행한 점에 대해 크나큰 실망과 함께 향후 운영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전당재단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는 문화, 예술, 콘텐츠, 홍보 등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됐으며 조직은 사장과 사무국장 아래 경영관리팀, 문화사업개발팀, 문화유통팀, 대외협력팀, 어린이문화팀, 서비스사업팀 등 6개 팀으로 편성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원인 규명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18일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4) 재해발생 현황(1,2블럭)

현황표

구분	계	추락	전도	충돌	낙하	붕괴	도괴	침락	감전	폭발	화재	파열	기타
전회	0	0	0	0	0	0	0	0	0	0	0	0	0
금회	10월	1	1	0	0	0	0	0	0	0	0	0	0
	11월	0	0	0	0	0	0	0	0	0	0	0	0
	12월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1	1	0	0	0	0	0	0	0	0	0	0	
누계	1	1	0	0	0	0	0	0	0	0	0	0	

◀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1·2단지 지반해 4분기 감리 보고서 표지(왼쪽)와 낙하·붕괴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기록된 재해 발생 현황표.

## 민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대선 후보로 연기

‘대선에 올인’ 전략적 판단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3·9 대선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법적으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일괄적으로 이를 미루고 대선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18일 비공개 최고위원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영진 사무총장이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광역·지방선거 후보자가 대선 승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

록, 공천률 세부 사항 등을 대선 이후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 검증위를 대선 이후에 가동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검증위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자격심사 없이 신청할 경우 당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지방선거 준비를 한 달여 가장 뒤로 미룬다는 의미다. 이는 일부 예비후보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지방선거 운동에 나설 경우 선거운동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대선 판세가 박빙 양상으로 전개돼 중앙뿐 아니라 지방 말단 조직까지 대선에 올인해야 한다는 인식도 깔렸다.

지방선거 자체가 대선 결과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한 핵심 당직자는 “대선에서 이겨야 지방선거도 승산이 있기 때문에 현실점에서 지방선거 준비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한 달 전 203동 ‘침하’ 감리보고서에는 ‘양호’

광주일보 단독 확보 ‘화정아이파크 1, 2블럭 2021년 4분기 보고서’

‘광주시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현장의 감리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또 골조 공사 마무리 시한이 12월 말까지로 적힌 시공사측의 예정 공정표가 공개되면서 애초 계획과 달리 1월 초까지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 공정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건설업계 의혹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18일 광주일보가 단독으로 확보한 ‘화정아이파크 1, 2블럭 신축공사 2021년 4분기 분기보고서’(사진)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03동 콘크리트 타설 도중 바닥 일부가 주저앉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조차 기록되지 않은가 하면, 공정·시공·품질·안전관리 등이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건설 과정이 양호하다’는 감리보고서가 서구청에 제출된 10일 바로 다음날인 11일에 16개층이 무너지는 대형 참사가 났다. 경찰도 조만간 관련 서류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일보가 입수한 붕괴사고 현장의 4분기 감리보고서를 보면 감리기관측 종합분석·평가 검토의 견에 ‘보통이상’의 평가 기준으로 양호하다고 적혀있다. 보고서에는 12월 말까지 골조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취지의 공정표가 붙어있다. 실제 공정은 그러나 공정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올해 초 눈이 내리는 영하의 날씨에도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했다. 사실상 공정이 한 달 가량 늦춰졌음에도 보고서에는 지난해 말 기준 계획 공정 60.3%

대비 62.6% 실제로 계획 대비 103.8% 달성했다고 기록했다. 감리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감리회사측은 또 203동의 10월~12월 날짜별로 지상 30층~지상 38층까지 벽체, 바닥, 기둥 철근 배근, 거푸집 설치에 따른 검증을 실시해 ‘적합’하다고 검증대장에 기록해 감리보고서를 제출했다. 경찰이 현장 작업자들을 조사해 “201동 붕괴사고가 나기 한달 전 쯤 203동 39층에서도 콘크리트 타설 도중 바닥 일부가 주저앉아 공사를 중단하고 재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과도 배치된다. 201동 붕괴 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 203동 붕괴 사고는 아예 보고서에 빠져 있다.

감리보고서의 지난해 10~12월(4분기) 1·2단지 재해발생 현황표에는 노동자 추락 사고(1명 부상) 외 ▲낙하 비래(飛來)(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다친 경우) ▲붕괴 도괴(넘어지거나 무너짐)란에는 ‘0’으로 적혀있다는 점에서 지난 4분기 관련 사고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통상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았더라도 바닥 슬래브 붕괴 등의 사고는 재해발생 현황표(붕괴도괴 분야)에 표시한다는 게 건설업계측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EQS**  
THIS IS FOR YOU.

**EQS**  
This is for you.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종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603(문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S 450+ AMG Line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3.8, 도심 : 3.8, 고속도로 : 3.7, 1회 충전거리(km) : 478,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107.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면제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용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용어미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